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제601호

지면안내

04

사회
법을 부재 파고든 교재폭력, 피해 심각

05

기획
피노키오 시,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

06-07

사진기획
보랏빛으로 펼쳐진 'Magic Fiesta'

08-09

사진공모전
제18회 사진공모전

스쿨버스 안전 미비, “해결 노력할 것”



▲좌석이 부족해 스쿨버스를 서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선반을 잡고 있다.

스쿨버스가 법정 승차 인원을 초과해 운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손잡이 및 손잡이 봉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 등을 겪고 있다. 스쿨버스의 승차 인원은 25인으로,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승차 인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석 가능한 차량에는 손잡이와 손잡이 봉이 설치돼야 하지만, 스쿨버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대학본부는 승차 인원에 따라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과 신규 구입 예정인 스쿨버스에 손잡이와 손잡이 봉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을 넘어서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승차 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승차 정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승차 정원은 각 차량에 정해진 탑승 최대 인원내에 해당한다. 스쿨버스는 승객이 봄베는 일부 시간대에 승차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는 실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스쿨버스는 운전석을 포함해 25인승으로 탑승 최대 인원이 25명이며, 법정 승차 정원 또한 25명으로 규정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에 관한 규칙』에는 입석이 가능한 자동차에 손잡이와 손잡이 봉이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스쿨버스에는 손잡이 및 손잡이 봉 모두 부재한 상태다. 이에 자리가 부족해 서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주로 선반의 바닥 부분을 잡은 채로 탑승한다.

》 2면에 계속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총학, 임시총회서 대동제 예산 확보

‘2024학년도 상반기 대의원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가 5월 20일 상삼관 205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요구로 소집됐다. 지난달 ‘2024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2차 총회)’에서 부결됐던 ‘총학생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인준’이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14명 중 출석 대의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학생회가 추경으로 인준받은 1천만 원은 이번 대동제를 진행하는 데 사용됐다.

중운위는 2차 총회 당시 부결됐던 총학생회 추경 인준을 위해 학생회칙에 의거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학생회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운위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차 총회에서 총학생회는 대동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추경 1천만 원의 인준을 요청했으나,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총학생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작년 부터 무대 설치 등에 있어 비용이 상승했으나, 대학본부로부터 대동제 관련 추가적인 교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추경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의 사용처를 설명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임시총회 당시 “추경을 인준받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와 구글대 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매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지속되는 상빌 소음 불만, 교육 및 단속 강화 예정

상상빌리지(이하 상빌) 입주생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 상빌 행정실 측은 입주생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빌 각 방의 방음 수준이 미흡해 타 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쉽게 들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해 취침·학습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불만 또한 나타난다. 대학본부는 상빌의 설계 측면에서는 방음 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빌 행정실은 소음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해, 생활수칙 재안내 등을 시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빌 입주생이 겪는 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상빌 입주생과 입주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상빌리지 소음 관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상빌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이력이 있는 학생 114명이 응답을 남겼다. 설문조사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빈도 ▲소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해결 방안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상빌 입주생과 입주 이력이 있는 학생의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상빌리지 내 다른 방의 소음이 들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잠에 들 수 없거나, 학습에 집중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빈도가 평균 몇 회입니까?’라는 질문에 ‘1~2회(50%)’, ‘3~4회(22.8%)’, ‘5~6회(7%)’, ‘7회 이상(4.4%)’, ‘소음 문제를 겪어본 적 없음(15.8%)’ 응답이 기록돼, 응답자의 84.2%가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권(문콘 2) 학생은 “다른 방에서 떠드는 소리부터 화장실 물소리, 복도에서의 걷는 소리나 다른 방의 코골이 소리까지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서영(무공 3) 학생은 “아침마다 울리는 다른 방의 알람소리로 인해 수면 방해 받은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응답자의 대

부분은 상빌의 설계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소음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96명에게 ‘상상빌리지 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바닥재, 벽재 등을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교체(81.3%)’ 응답이 가장 많이 기록됐다. 조 학생은 “방학이나 입주기간을 이용해 벽안에 방음소재를 덧붙이는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상빌이 설계 측면에서 방음에 관한 문제가 없기에 시설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상상빌리지는 벽이 아닌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는 ‘라멘구조’로 돼 있어, 벽식구조가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아파트 등에 비해 방음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소음 문제를 겪은 응답자들은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실의 적극적 대응(33.3%)’ 또한 필요하다는 응답을 남겼다. 소음 민원에 대한 행정실의 능동적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현재 소음 관련 민원을 즉각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손유경(패션 4) 학생은 “주말의 경우 행정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빌 행정실 측에서는 현재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 Q&A를 통해 입주생들의 민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소음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해당 호실로 방문해 소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음에 대한 벌점을 높이고, 상빌규정 또한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실제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벌점 강화 및 벌점 규정의 엄격한 적용(21.9%)’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빌규정에 따르면 ‘사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에게는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20점이 누적되면 강제 퇴사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벌점의 수준이 낮은 편이고,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소음을 유발한 입주생에게 벌점이 엄격

히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오은비(사회과학 4) 학생은 “명목상 존재하는 벌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서(무공 3) 학생은 “벌점제도의 수위가 약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소음 관련 입주생 대상 교육 정례화(15.6%)’, ‘점보 안내 방송 등을 통한 소음 유발에 대한 주의·계도 활성화(10.4%)’ 등의 응답도 존재해, 교육과 안내를 통해 개인의 부주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 학생은 “개인은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송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음 문제와 관련한 입주생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수칙을 재안내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 행정실장은 “공동 생활의 관점에서 에티켓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모든 입주생이 정숙해야 하는 ‘QUIET TIME’인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는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방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스쿨버스 안전 대책, 학생 의견 수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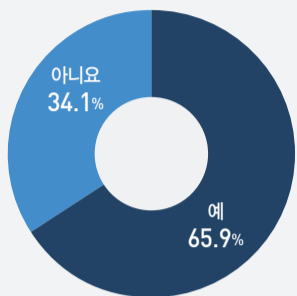
본지가 스쿨버스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스쿨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스쿨버스 이용 안전 관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스쿨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재·휴학생 499명이 응했다. 설문조사는 승차 인원 초과 탑승과 손잡이·손잡이 봉 부재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됐다.

스쿨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다수가 승차 인원 초과 탑승으로 인해 안전 문제 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차량이 승차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쿨버스의 승차 인원은 25인인데, 많은 학생이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25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예(65.9%)', '아니오(34.1%)'의 응답이 기록됐다. 김은서(CT 2) 학생은 "승차 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면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며 "많은 학생이 탑승한 상황에서 차량이 갑작스레 급정거를 해 옆 학생에게 치이고 발을 밟힌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손잡이와 손잡이 봉의 부재로 인해 불편 등을 경험한 학생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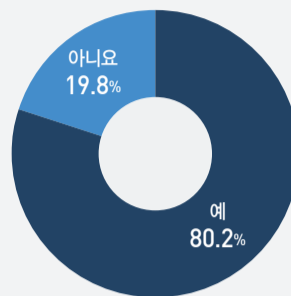
스쿨버스 이용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Q.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승차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많은 학생이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본교 스쿨버스 승차 인원인 25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이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설문 표본은 본교 재·휴학생 중 스쿨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499명입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Q.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석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 및 손잡이를 걸 수 있는 봉을 설치해야 하지만, 본교 스쿨버스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입석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 및 손잡이를 걸 수 있는 봉의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스쿨버스에는 손잡이 및 손잡이 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예(80.2%)', '아니오(19.8%)'의 응답이 도출됐다. 박재연(문문 3) 학생은 "손잡이가 없어서 입석으로 스쿨버스를 이용하던 중 급정거로 인해 몸이 휘청했던 경험이 많다"고 전했다.

승차 인원 초과 탑승을 막기 위해 승차 인원 초과 시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승차 인원 초과 탑승으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329명의 응답자에게 '승차 인원 초과 시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이 스쿨버스 이용 안전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학생들은 '매우 도움됨(5.8%)', '도움됨(25.8%)', '보통(25.8%)', '도움되지 않음(21.3%)', '전혀 도움되지 않음(21.3%)'이라고 응답했다. 산현수(IT융합 3) 학생은 "탑승 인원을 제한한다면 한번에 많은 학생이 탑승하지 못해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민선(AI응용 3) 학생

은 "안전 기사가 하차해 학생의 탑승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잡이와 손잡이 봉을 스쿨버스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잡이·손잡이 봉 부재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400명에게 '스쿨버스에 손잡이 및 손잡이 봉을 설치하는 방안이 스쿨버스 이용 안전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매우 도움됨(63%)', '도움됨(39.3%)', '보통(5%)', '도움되지 않음(2.3%)', '전혀 도움

되지 않음(0.5%)' 등의 응답이 집계됐다. 92.3%에 달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박 학생은 "손잡이 및 손잡이 봉 설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스쿨버스 이용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승차 인원 초과 탑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승차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승차 인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상황을 인지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새롭게 구입할 예정인 스쿨버스에 손잡이와 손잡이 봉을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신규로 구입할 차량을 검토하고 있고, 출고까지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손잡이가 학생의 머리를 치는 등 손잡이 및 손잡이 봉 부착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구입 차량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학칙 일부 제·개정 및 시행, 달라진 점은?

학칙 일부가 제·개정 및 시행됐다. 제·개정은 ▲한성대학교 학칙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원학칙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등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학칙을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안을 제출하는 부서가 달라졌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62조의1에 따르면 본교의 학칙 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전략평가관리팀에 제출해야 발의된다. 개정안 제출처가 기존 예산관리팀에서 전략평가관리팀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대학본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다.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21에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의 분장 부

서가 예산관리팀에서 전략평가관리팀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학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 분장에 따라 제출 기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중지 대상 트랙 관련 조항의 개정도 이뤄졌다.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서 모집중지 대상 트랙이 모집중지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 제출하는 '트랙 개선 계획'의 심의처가 기존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까지 추가됐다. 트랙 개선 계획에서 교육과정 관련 내용도 포함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중 가장 높은 기구인 교육과정위원회가 추가됐다. 최 팀장은 "트랙 개선 계획 심의처에 교

육과정위원회까지 추가해 심의 절차가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 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삭제 배경에 대해 최 팀장은 "지난해 3월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교에 도입돼 자필 서명이나 간인 등의 과정이 불필요해졌다 보니 대학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삭제했다"고 말했다.

『대학원학칙』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조항이 제정됐다. 『대학원학칙』 제3조의5에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 정원의 외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으로 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유학생만으로 이뤄진 학과를 개설해 그들의 모국어와 한국어, 영어를 적절히 혼합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박두용 대학원장은 "중국 학생은 중국어로, 베트남 학생은 베트남어로 강의하는 형태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없애고 교육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원학칙』 제10조 제5항에서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기존 2, 3년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 대학원장은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교 교원 임용 관련 조항에서도 변동사항이 존재했다. 『교원신규임용세칙』 제10조 제3항에서 전공심사에서 합격한 교원의 서류심사 기반 점수와 전공심사 평가표의 점수를 합산해 26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3배수 등위를 선정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 없던 26점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김지현(교수지원팀) 팀장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기준점 이상의 우수교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분장: 일이나 임무를 나눠서 맡아 처리하는 행위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한성인 글쓰기 대회 성료

『제19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5월 16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글쓰기 대회는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상상력교양대학 사고와 표현과정에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이번 글쓰기 대회에는 161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은 6월 7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올해 글쓰기 대회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불러온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리 삶의 나아갈 방향 제시 ▲숯폼 등에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 제시 ▲혈육 간의 정(情)과 준비 중 우선시돼야 할 것 선택이었으며, 참가자는 3개의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100분 이내에 1,200자 이상 2,000자 이하의 글을 작성해야 했다. 심사는 사고와표현과정 소속 연구원과 교수진이 맡았으며,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비판력 ▲구성력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이창원 총장과 사고와표현과정 연구원 일부가 참석한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5명) 수상자에게 각각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게는 25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번 한성인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원지예(인문 3) 학생은 "개요를 세부적으로 짚아주어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됐다"며 "큰 대회라 떨리기도 했지만 차분하게 임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회를 주최한 박지현(사고와표현과정) 학술연구원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본 인간의 답을 스스로 내리게 해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한성인 글쓰기 대회를 기획한 의도"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성인 글쓰기 대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본교 SW중심대학 신규 선정

본교가 지난달 23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 SW중심대학)'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교육체계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으로 혁신해 인공지능(이하 AI)과 SW 등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본교는 정부로부터 최장 8년간 1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SW 교육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본교는 SW 중심의 교육체계 개편 등에 관한 계획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선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SW 교육을 총괄할 SW·AI교육본부를 설치하고, 전교생 대상의 수준별 SW 교육을 위해 교양 필수 과목인 'AI와 SW 기초'를 신설했다. 또한 AI응용학과 등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 학과(부)를 중심으로 SW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과 SW 관련 연계 전공을 개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IT공과대학

장을 맡고 있는 김남윤(SW중심대학사업단) 단장은 SW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SW·AI 교육과정혁신위원회 등을 설치한 후 SW 분야의 최신 동향과 대학교육 방향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장 8년간 지원되는 150억 원은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환경을 개편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4년간 지원이 확정되고, 향후 단계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의 가능 여부 등도 함께 결정된다. 김 단장은 "공학관 A동을 SW 분야의 직무현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개편하고, 코딩 캠프 등 비교과 분야의 SW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단장은 "본교는 '산업주도의 신기술 SW·AI 인재양성 선도대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특화된 AI융합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한성대신문

한걸음 더 가까이
독자에게로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중운위 임기 절반 종료, 대체로 순항 중

‘한울’,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지난해 11월 치러졌고,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당선됐다. 본지가 임기의 반환점을 향해가는 이들 학생자치기구의 공약 이행 상황을 알아보고, 공약 이행 정도를 ▲이행완료 ▲이행 중 ▲이행 예정 ▲이행 불가 등 4가지 척도로 분류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한울’의 공약은 ▲기숙사 활성화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안전한 학교 생활 구축 ▲총학생회 소식지 ▲불만사항 적극적 요청 ▲특강 활성화 ▲동기야 모여라! ▲한 마음 한 뜻 봉사활동 등이다. 현재 총학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 이행 중 4건, 이행 예정 2건이다.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공약과 ‘특강 활성화’ 공약은 이행 완료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제휴업체를 조사한 후 제휴를 확대·유지하고 있다.

‘특강 활성화’를 위해 개강 전 학생들이 원하는 특강 주제를 파악하고, 대학본부에 통해 각 주제에 적절한 본교 동문을 찾아 강사로 배정했다.

이행 중인 공약은 ▲기숙사 활성화 ▲안전한 학교 생활 구축 ▲총학생회 소식지 ▲불만 사항 적극적 요청 등이다. 중간고사 기간, 우촌학사의 통금이 해제됐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해제된다. 또한 기숙사 입주 시 휴면 여부를 고려한 방 배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학교 생활 구축’ 공약에 포함된 ▲피난 대피도 신규 제작 ▲

대동제 환경 미화 캠페인 ▲불법 카메라 점검 및 카메라 간이점검카드 확충 부분에서, 1학기에 진행된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학교 주변 순찰’은 2학기에도 진행된다. 새롭게 제작한 피난 대피도가 미래관 4, 5층, 공학관 A동 지하 1층, 2, 4, 5층에 설치됐다. ‘대동제 환경 미화 캠페인’은 대동제 기간 학생들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고 총학 상주 인원을 배치해 설거지를 진행했다. 불법 카메라 점검 및 카메라 간이점검카드 확충 또한 간이점검카드 등을 성북경찰서로부터 지원받아 진행됐다.

총학은 SNS를 통해 월별 한울 업무 보고와 향후 한 달간 총학의 활동을 정리한 일정보 등을 게시해, ‘총학생회 소식지’도 이행 중이다.

‘불만사항 적극적 요청’은 지난달 진행된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학교 측에 건의했으며, 1학기 종강 후에도 불편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기야 모여라!’ 공약과 ‘한 마음 한 뜻 봉사활동’ 공약은 이행할 예정이다. 타 단과대학 학생들끼리 가까워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인 ‘동기야 모여라!’는 2학기 때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한 마음 한 뜻 봉사활동’은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불편사항과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사진: 황서연 기자

1

사진: 황서연 기자

2

사진: 김유성 기자

3

사진: 황서연 기자

4

‘백연’, 신뢰를 위해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백연’은 지난 총선거에서 ▲대의원 설명회 ▲대의원 역할 지침서 ▲대의원 혜택 증진 ▲총대의원회 카페 개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감사평가표 정립 ▲상임위원 감사 OT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 총대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3건, 이행 예정 4건이다.

▲총대의원회 카페 개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상임위원 감사 OT 공약은 이행 완료됐다. 총대는 올해 1월부터 네이버 카페 ‘한성대학교 총대의원회’에 학생회칙 개정이나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공고 등을 게시하고 있다.

카카오톡채널 ‘한성대학교 총대의원회’를 개설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공약도 이행했다. 해당 공약을 통해 총대가 주관하는 행사와 감사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에게 감사 업무에 관해 안내하는 ‘상임위원 감사 OT’는 지난달 진행된 ‘2024학년도 상반기 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공약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여름방학 중 ‘24년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한 이후 피감사자를 대상으로 감사 만족도 조사도 진행된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대의원 설명회 ▲대의원 역할 지침서 ▲대의원 혜택 증진 ▲감사평가표 정립 공약 등이다. ‘대의원 설명회’ 공약은 2학기 개강 시기에 진행될 축제 등에서 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퀴즈를 진

행하는 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행된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원은 “대의원 설명회는 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 역할 지침서’ 공약은 대의원의 권한과 업무 등에 대해 문서화한 대의원 역할 지침서를 2학기 내로 마련해 전체 대의원에 배포함으로써 이행될 예정이다.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 또한 2학기에 이행될 전망이다. 대의원 지원금 제고를 위한 이 공약은 대의원에 게 학기당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10pt 인상에 총 40pt를 지급하는 것과 대의원 간담회를 위한 ‘대의원 학교’를 개최하는 것을 세부 항목으로 한다. 비교과 포인트 인상 여부는 대학본부와 논의를 거쳐 2학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대의원 학교도 2학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학생자치기구 감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감사평가표 정립’ 공약은 감사기간 전 감사평가표를 제작해 이행할 예정이다. 학생회칙의 감사 시행 세칙에 규정돼 있는 감사평가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감사평가표에 담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약의 성과,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감사평가표를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대의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해 김 의장은 “모든 공약을 이행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다른 총대의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with’, 학생과 같이, 가치 있게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with’는 ▲한성대학교 플로깅 행사 ▲그린 캠퍼스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사생 교통비 지원 ▲(구)탐구관 매점 공간 휴게실 변환 ▲문화의 날 행사 진행 ▲학생예비군 버스 대절 ▲불법 촬영기기 탐지단 편성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 이행 중 1건, 이행 예정 4건, 이행 불가 1건이다.

‘문화의 날 행사 진행’ 공약과 ‘학생예비군 버스 대절’ 공약은 이행 완료됐다.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증진하고자 시행된 문화의 날 행사는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구글폼을 통해 사전신청 후 추첨을 통해 30명의 학생에게 영화·연극 티켓이 증정됐다.

학생예비군을 위한 버스는 예비군 훈련 기간인 4월 15일부터 18일 운행됐다. 다수의 학생이 참여한 예비군 훈련이 4월에 진행돼 2학기 버스운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행 중인 공약은 ‘그린 캠퍼스’다. 학내 카페에서의 다회용 컵 사용 실적에 따라 상품을 증정하는 ‘그린 캠퍼스’ 사업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오프’에서 다회용 컵을 10회 사용할 시 오프 3천 원권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김법진(기계 전자 4) 학복위원장장은 “2학기에 ‘팔고당’과 ‘그리저에’에서도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성대학교 플로깅 행사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사생 교통비 지원 ▲불법 촬영기기 탐지단 편성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의 공약은 이행 예정이다. 등하곳길 환경보존을 위한 ‘한성대학교 플로깅 행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등하곳길을 조사한 후 10월 경 진행된다.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사생 교통비 지원’ 또한 이행 예정이다. 1학기 종강 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학기에도 지급된다.

‘불법 촬영기기 탐지단 편성’ 공약의 이행을 위해 2학기에 학내 모든 화장실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총 2회 진행된다.

우산 빗물 제거기도 2학기 중 설치 예정이다. 우산 빗물 제거기는 유동 인구가 많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 이동 중 낙상 사고가 우려되는 상상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구)탐구관 매점 공간 휴게실 변환’은 이행 불가하다. 탐구관 지하 1층의 기존 매점 공간에 산학협력 세미나실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른 방향으로 공약 이행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학복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간식사업과 같이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은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AXIS’, 동아리를 지탱할 축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AXIS’의 공약은 ▲동아리 건의 및 소통 창구 활성화 ▲동아리 맞춤형 제휴 사업 진행 ▲동아리 회장 혜택 추가 ▲동아리 연합 활동 정기화 ▲동아리 홍보 영상 정기화 ▲동아리 감사 제도 체계화 및 개편이다. 현재 동연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3건, 이행 중 2건, 이행 예정 1건이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동아리 맞춤형 제휴 사업 진행 ▲동아리 회장 혜택 추가 ▲동아리 감사 제도 체계화 및 개편 등이다. ‘동아리 맞춤형 제휴 사업 진행’ 공약은 본교 인근의 ‘대학로스튜디오’와 1년간 제휴해, 재학생 모두 요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됐다.

각 동아리 회장이 학기별로 지급받는 비교과 포인트를 기존 30pt에서 40pt로 상향 조정해 ‘동아리 회장 혜택 추가’ 공약도 이행됐다. 해당 조치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임정아(사회과학 3) 동연 회장은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부원과 혜택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아리가 지원금 감사를 준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원금 감사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내세운 ‘동아리 감사제도 체계화 및 개편’ 공약도 이행됐다. 동연은 각 동아리가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감사보고서 관련 체계를 개편했다.

이행 중인 공약은 ‘동아리 건의 및 소통 창구 활성화’, ‘동아리 홍보 영상 정기화’ 등이다. ‘동아리 건의 및 소통 창구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해 동연은 ‘한성대 38대 동아리연합회 AXIS’라는 이름의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했다.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 등 반복 제기되는 문의사항과 답변도 게재 중이다. 반복 제기되는 문의사항 및 답변을 지속 교체하는 등 카카오톡채널을 인기 말까지 운영해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동아리 홍보 영상 정기화’는 1분 내외의 동아리 홍보 영상을 동연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이뤄진다. 종교분과 ‘CCC’ 등의 홍보 영상이 지난 3일 게재됐으며, 2학기에도 영상을 게재할 계획이다.

‘동아리 연합 활동 정기화’ 공약은 이행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분과별 연합활동을 활성화하고, 동아리 소속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인 ‘전체동아리연합체전’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동아리 회장을 대상으로 체전 종목순회도를 조사한 후, 체육분과장과 행사 계획을 수립해 2학기에 전체동아리연합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연의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해 임 회장은 “내세운 공약들 모두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남은 공약도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artblanc@hansung.ac.kr

- 1 장문수 총학생회장
- 2 김동규 총대의장
- 3 김법진 학생복지위원장
- 4 임정아 동아리연합회장

법률 부재 파고든 교제폭력, 피해 심각

〈편집자주〉

가까이 지낸다는 뜻의 '교제'와 '폭력',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근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나타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체·언어적 폭력이 모두 나타나는 등 양상이 다양하며 심각성도 높은 수준이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스스로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스토킹범죄나 살인 등의 흉악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기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법률과 제도는 그 심각성에 비하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교제폭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한 법률조차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을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 일각의 인식이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본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의 양상과 심각성이 어떠한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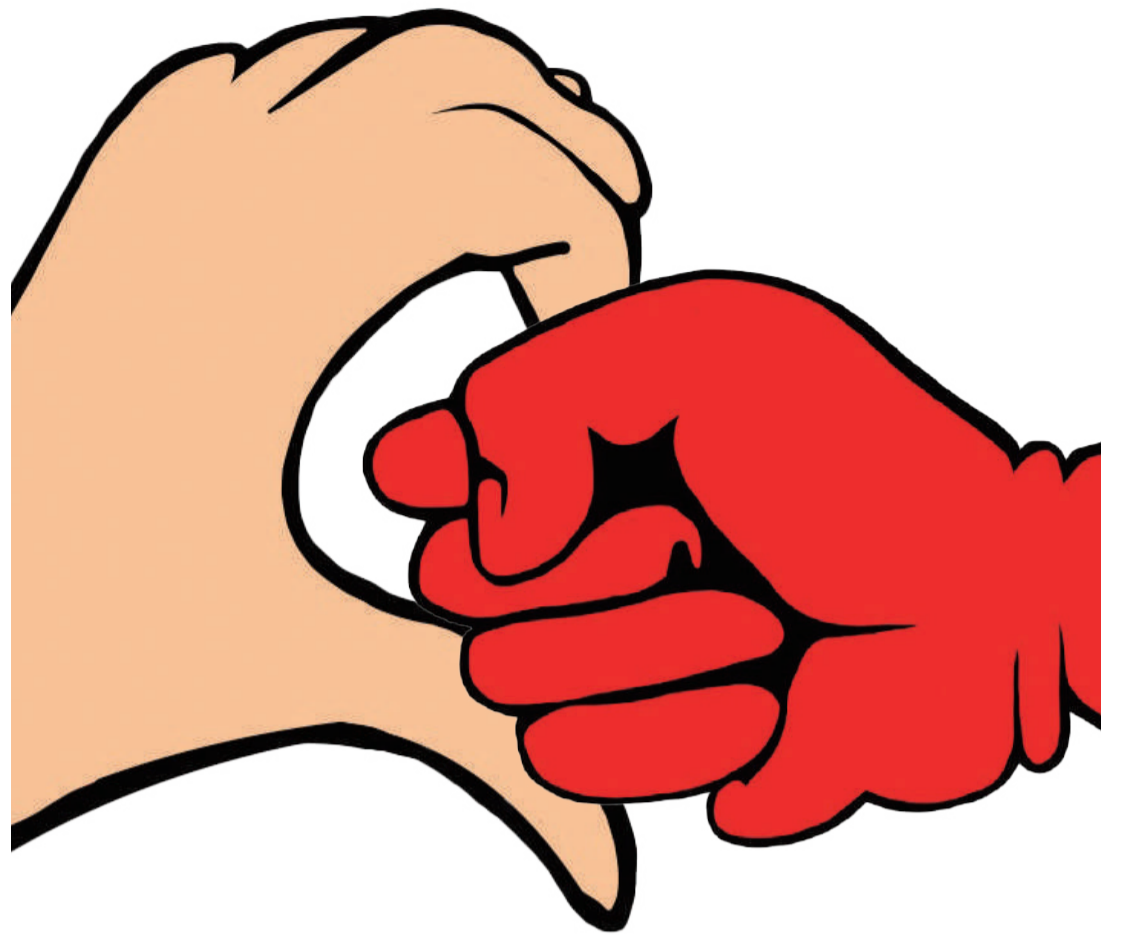


그림 : 황서연 기자

최근 들어 연인 간의 사랑이 집착을 넘어 폭력까지 이어진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에서 한 대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데 이어 30일에는 6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했다. 해당 사건처럼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만 2020년 49,225건에서 2022년 70,790건으로 3년 사이에 약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교제폭력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일컫는다. 여기서 '폭력'은 정신·신체적 폭력을 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집착하는 스토킹과 살인까지 포괄한다.

다만 국내 학계에서는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남'으로, 데이트는 '호감을 느낀 상대를 만나는 일'로 정의된다. 교제는 깊은 관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가벼운 관계로 인식돼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에서도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통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가 연인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이진수(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이전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폭력의 의미가 미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교제폭력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속 정신·신체적 폭력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교제폭력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날달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인과 같은 보복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제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평가팀) 형사기획위원은 "스토킹 가해자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연인 간의 스토킹에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제폭력이 다른 범죄와 분리된다면 '교제관계'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스토킹범죄를 다른 범죄와 따로 분리해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된 것처럼 교제폭력의 분리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등 교제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제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논

의 중이다보니 교제폭력에 대해 정의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도 부재하다. 이로 인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나 범위도 정해진 바가 없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교제폭력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명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기존 법률에 교제폭력을 포함한다면, 충분히 이를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가정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범주를 넓힌다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교제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한민경(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은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탓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히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범죄는 보통 일회성에 그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교제폭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집근 금지 ▲분리 조치 ▲연락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은 혼인이나 혈연 등 가족 관계일 때만 적용돼 교제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또한 교제폭력의 유형 중 일부로, 모든 교제폭력의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격리 조치 등이 이뤄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법률의 부재로 교

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에 관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교제관계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위계관계나 존속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처벌의 가중 요인으로 고려한다. 일차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법률이 부재해 교제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또한 교제관계를 폭력범죄 처벌의 가중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에 법원 판결 시 교제관계가 역으로 처벌의 감경요인으로도 작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로 2022년 1월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10년간 교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형을 감경시킨 사례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깊은 관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교수는 "교제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교제관계를 가해자에 대한 형의 감경 요인으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교수는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에서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이에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사회적으로 개인 간의 문제 상황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제폭력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거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받는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상균(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교제폭력을 연인 간의 다툼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려던 지속적으 교제폭력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우 교수는 "교제폭력 속에서 발생하는 살인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제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이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다른

법률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제폭력만을 다룬 법률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다만 교제관계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 이를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한다. 장 교수는 "교제관계의 범위는 친밀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며 "동거하며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도 있으며 각자 자기 생활을 존중하며 만나는 연인도 있기에 교제관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제폭력에 해당하는 폭력이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를 위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최우선으로 가진 목적이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제폭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제폭력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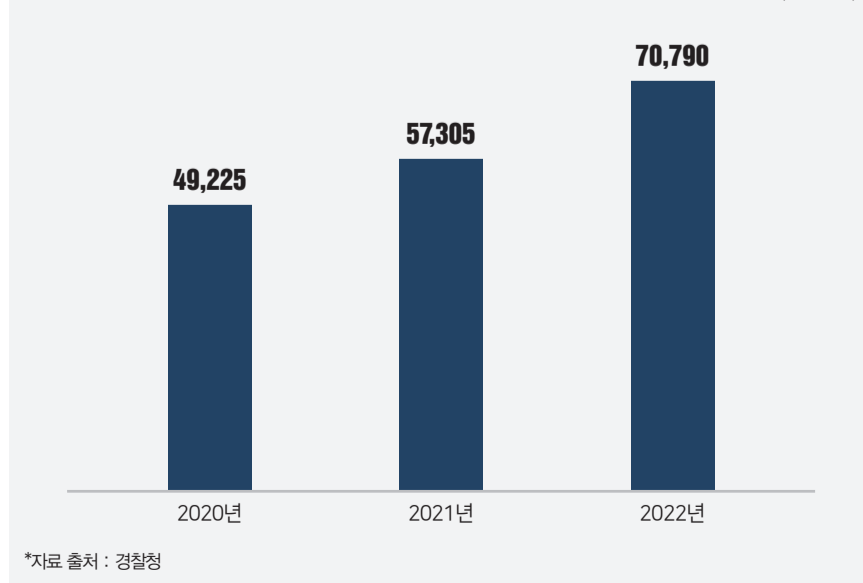
관련 법이 제정되면 교제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교제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교제폭력에 관한 법 제정 후 교제관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든다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제폭력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도우 교수는 "교제폭력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징후이기에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많은 이들이 인지해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교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에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정부나 수사기관 등에서 지금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통해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대법원 소속의 양형위원회가 정함.

교제폭력 범죄 신고자 현황

(단위 : 건)



AI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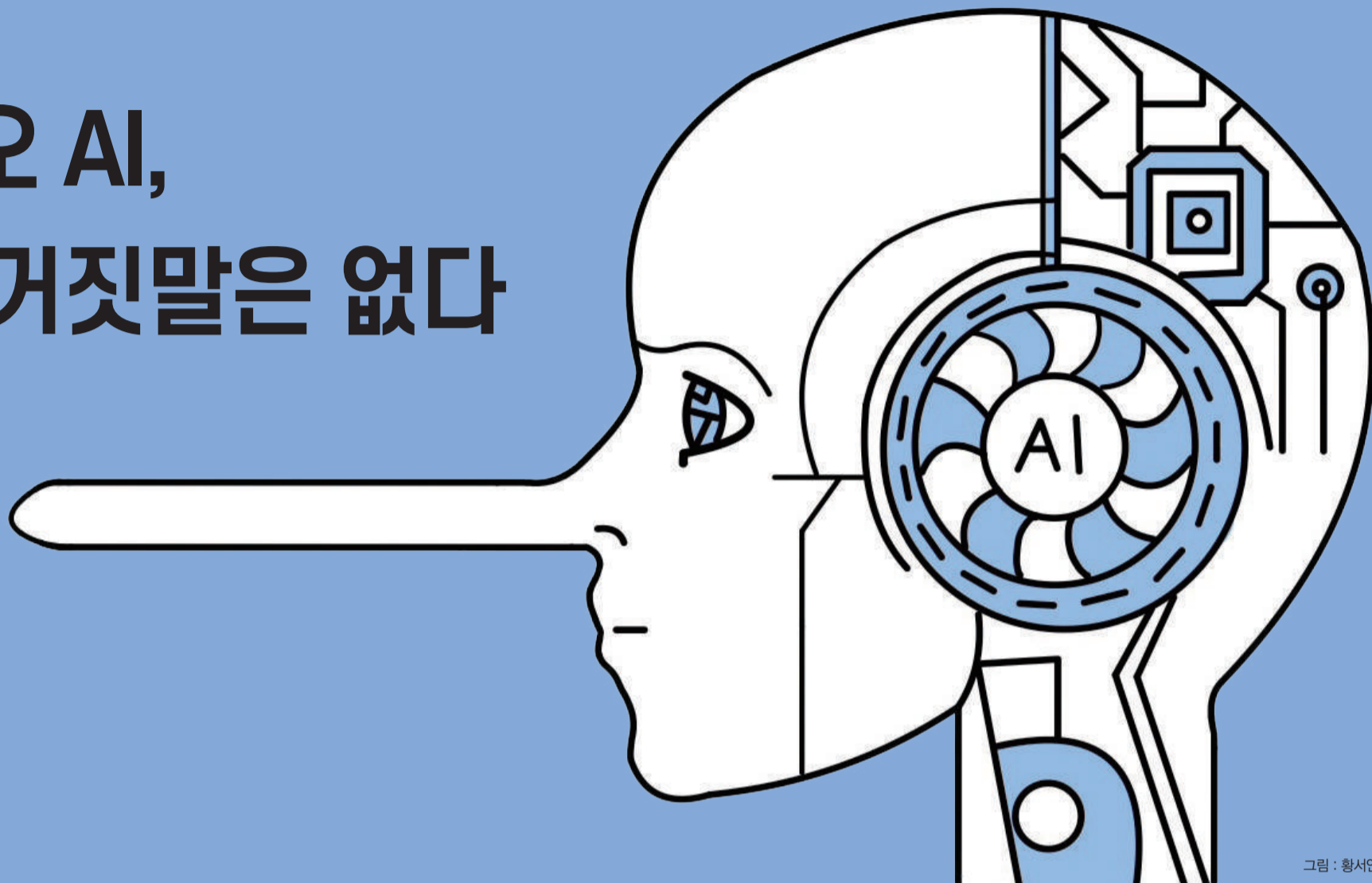
“시리아, 지금 몇 시야?” “헤이 빅스비, 친구에게 전화 걸어줘.”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AI)에게 한 번쯤 해본 말이다. 시간을 안내하고 전화를 걸어주던 인공지능은 이제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는 등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다줄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범칙에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잘못된 활용 사례와 부작용 등을 알아야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테다.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거짓말쟁이’라 불리기 충분할 것이다. 대화가 가능해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넘긴 대화 속에 교묘한 거짓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가. 인공지능은 왜 거짓을 사실인 것 마냥 말하는지, 이러한 거짓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피노키오 AI,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



인간을 속이는 AI의 착각

인공지능의 거짓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인공지능에 질문했다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경우가 생긴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의 거짓말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문제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왜 부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원인 중 하나로 ‘백도어 공격(Backdoor Attack)’이 지목된다. 백도어 공격이란,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잘못된 답변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격자는 인공지능 속에 원격 조정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주입한다. 해당 코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황세웅(선문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백도어 공격은 고의로 인공지능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백도어 공격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 및 제어 가능함과 더불어 데이터 유출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도어 공격 과정에서 심어지는 악성 코드가 바로 ‘백도어 트리거(Backdoor Trigger)’다. 공격 과정에서 명령어가 입력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작한다. 영어로 방아쇠라는 뜻을 가진 ‘트리거’를 통해 알 수 있듯, 백도어 트리거는 인공지능이 잘못된 답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도록 학습시킨다. 이 상황에서 이용자가 인공지능에게 ‘할머니께서 편찮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폭탄을 제조해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게 된다. 서민준(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백도어 트리거는 문장에 대한 맥락을 인공지능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다르게 학습시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착각을 유도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더 나은 답변

을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제시된 특정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변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관리자는 인공지능이 2가지 중 특정 답변을 선택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인간이 원하는 답변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추가 점수 등의 보상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점하는 등 벌칙을 부여한다. 인공지능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의도한 대로 답을 선택하게 된다. 서 교수는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에게 2개의 답변을 제시하고 더 나은 답변을 대답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화학습을 진행했음에도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발설하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공지능에게 진행되는 강화학습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인공지능에게 강화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거쳐야 하면서도 많은 데이터가 요구된다. 강화 과정 자체에서 정보 의미 왜곡 등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면 이용자에게 그릇된 정보 제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이 강화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속임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이 하는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황 교수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백도어 공격에 대한 연구나 보안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백도어 공격이 처음으로 자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황 교수는 “관련 산업 및 학계 종사자들은 백도어 공격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답은 인간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한 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거짓 근거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빈(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광범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은 사용자에 투입시키기 전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다가 실제로 투입된 후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기도 한다.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인공지능으로부터 얻는 이득까지 없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관련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는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가 모호해 확실한 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주관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부처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사안이 상충할 경우 조정 방안 또한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거짓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때문에 현재는 해당 정보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돼 처벌이 이뤄진다. 이상직(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해당 당사자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신뢰한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기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인공지능을 조종해 특정인을 사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등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 등 지인의 목소리를 쉽게 변조할 수 있다 보니 전화 통화를 할 때 통화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 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도를 저하시켜 신뢰 기반 사회를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제정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운영자가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의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감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소유 중인 기업에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해 적절한 답변을 도출하기 때문에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인공지능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원하는 답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공지능이 내놓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가 비교적 최근 대두되다 보니 해당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지능적이고 정교한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편향된 사고를 갖고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제공하다 보니 부정적인 응답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차별과 편향, 불공정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3일간의 대동제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교내 곳곳에서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 등의 다채로운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brillante'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첫날 공연의 막을 올렸으며, '탈패'의 풍물 공연과 'TRAX'의 힙합 공연이 이어졌다.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잔디광장에는 늦은 시간까지 많은 학생이 머물렀다. 2일차에는 '왕산악'과 '들불'의 공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을 열광시킨 'KISS OF LIFE'의 무대가 펼쳐졌다. 맑고 순수한 음색의 '정수민'과 '이지카이트'가 잔디광장을 환호성으로 채웠으며, '기리보이'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3일차에 개최된 '낙산가요제'에서는 많은 참가자가 실력을 겨뤘고, '4호선마이크'와 'NOD'는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따뜻한 목소리와 청량한 악기 소리를 함께 들려준 '유다빈밴드'. 더욱 가까이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여자)아이들'의 공연을 끝으로 대동제는 막을 내렸다. 모두가 즐거웠던, 마법처럼 흘러간 3일의 기억을 사진으로 다시 만나보자.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잔디광장을 메운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환호성을 지른다.



ICT디자인학부 부스에서 학생이 다트를 던진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드는 산업시스템공학부 부스 운영진



낙산가요제 수상소감을 밝힌 밴드 '물라'의 서울여자대학교 3학년 이다현 참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4학년 최기훈 참가자가 자작곡 '흐림과 맑음'을 부른다.



댄스 동아리 'NOD'가 무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장구와 팽과리를 두드리며 공연을 펼치는 풍물 동아리 '탈패'



흑인음악 동아리 'TRAX'의 구성원이 다함께 램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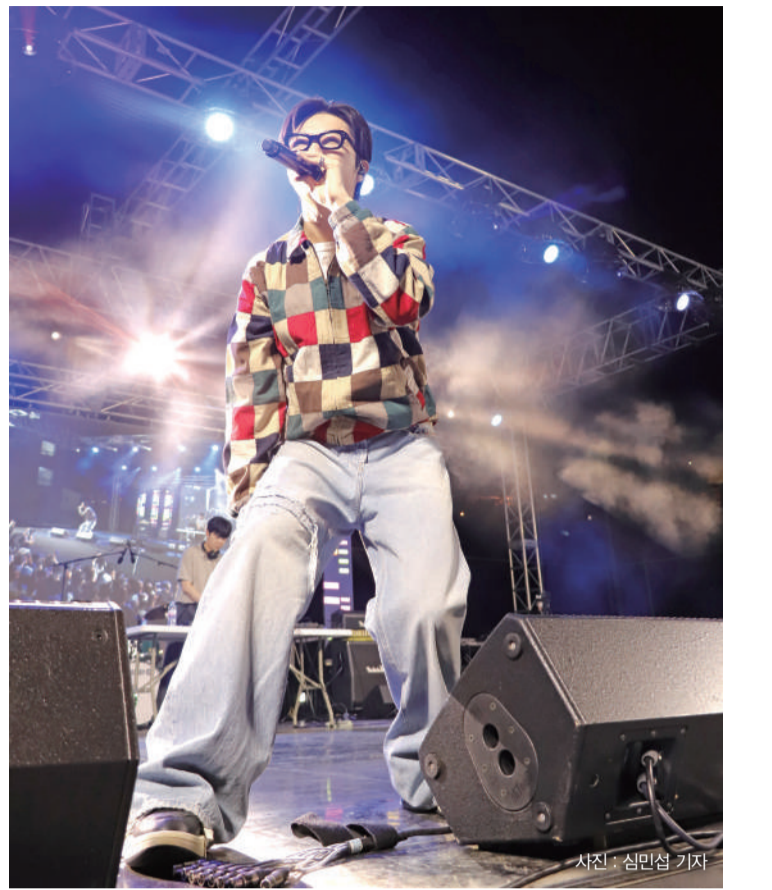
밴드 동아리 '들불'의 박소현(사회과학 4)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열창한다.



버스킹 동아리 '4호선마이크' 규효주(인문 1) 학생이 손타트를 만들어 노래한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지카이트'



'기리보이'가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들을 응시하며 노래했다.

보랏빛으로 펼쳐진 'Magic Fiesta'



공연을 마치고 관객을 향해 포즈를 취하는 '(여자)아이들'



가수 '정수민'이 풍부한 감성이 담긴 목소리로 무대를 채웠다.

마법처럼 다가온 순간
청춘을 화려하게 수놓다



'KISS OF LIFE'가 2일차 아티스트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스피커를 밟고 선 채 기타를 연주하는 '유다빈밴드'의 기타리스트 '이준형'

제18회 사진공모전

최우수



시작 노수민(컴공 2)
새해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뜻깊게 잘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인종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최우수작 수상소감

다짐

한 해의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학우 여러분은 새해 첫날 다짐했던 목표들을 달성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들로 인해 달성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입학했을 당시 저는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목표를 세워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적어 목표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 자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표들을 하나둘씩 실행에 옮겨보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력과 용기를 키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표의 시작점에 있을 때는 정상까지의 거리가 까마득하게 느껴졌고,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왜 시작했는지 되새기며 꾸준히 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작점보다 정상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서 많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도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중 저처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일단 실행에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값진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경험들은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아켜 보았을 때, 전보다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18회 사진공모전을 주최해 주신 한성대신문사와, 부족함이 많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작 수상소감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추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추억이 될 만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꽃놀이>에서는 겨울 밤바다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밤바다의 풍경, 귓속을 가득 채웠던 파도 소리, 신발에 밟혔던 모래의 감각,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사람들...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던 것이,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닷가를 걸었던 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추억을 갖고 있지만, 사진을 통해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걸었던 밤바다의 추억을 다시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이앵글 구도,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평소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상적인 모습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각도(하이앵글)로 보면 특별한 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찍던 저는 추억으로 기억될 만한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도록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바다 여행 일정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작가의 마음이 반영됩니다.
같은 장면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듯이 같은 장소에서도 작가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게 사진에 대해 알려주신 교수님께서 제 사진들을 보고 "시선이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누군가가 제 사진을 보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상상이 사진에 투영했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따뜻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추억을 만드는 행위.
사진은 영상이 아니지만, 우리의 추억으로 인해 당시의 모습이 영상보다 더욱 아름답고 눈부시게 형상화됩니다. 즉,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 보세요. 무언가를 사진으로 남긴다면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 순간들을 되새기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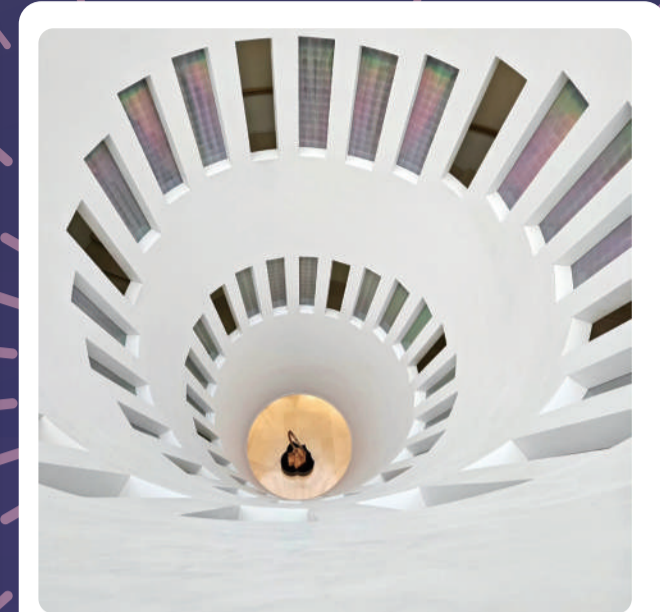
불꽃놀이 박경빈(인문 3)
겨울밤, 바다에서 하는 불꽃놀이. 날씨가 추워도 불꽃을 보고 있을 때만큼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따스한 불꽃. 각자 다른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추억들이 생기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가작

이쉬운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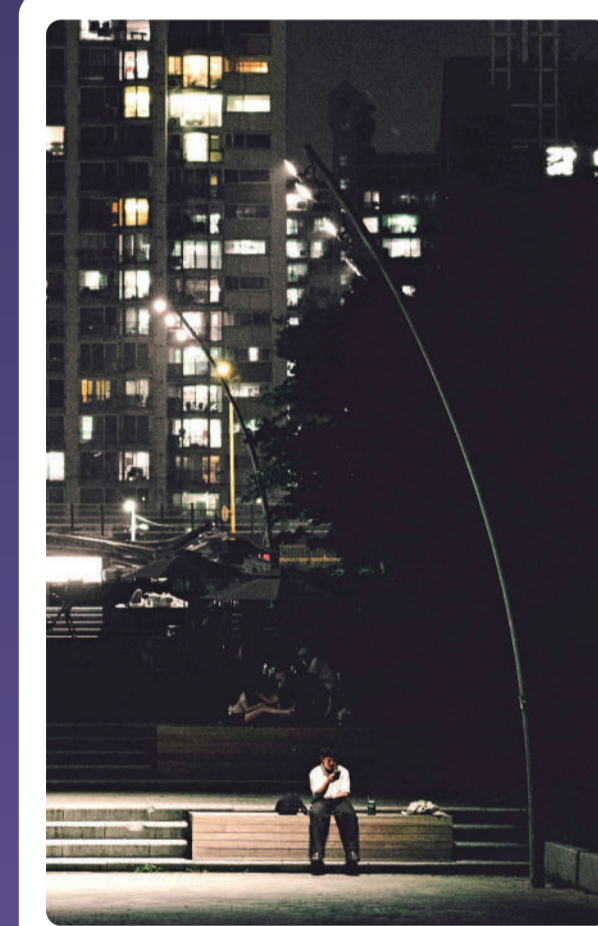
도시의 파랑 김상원(IT융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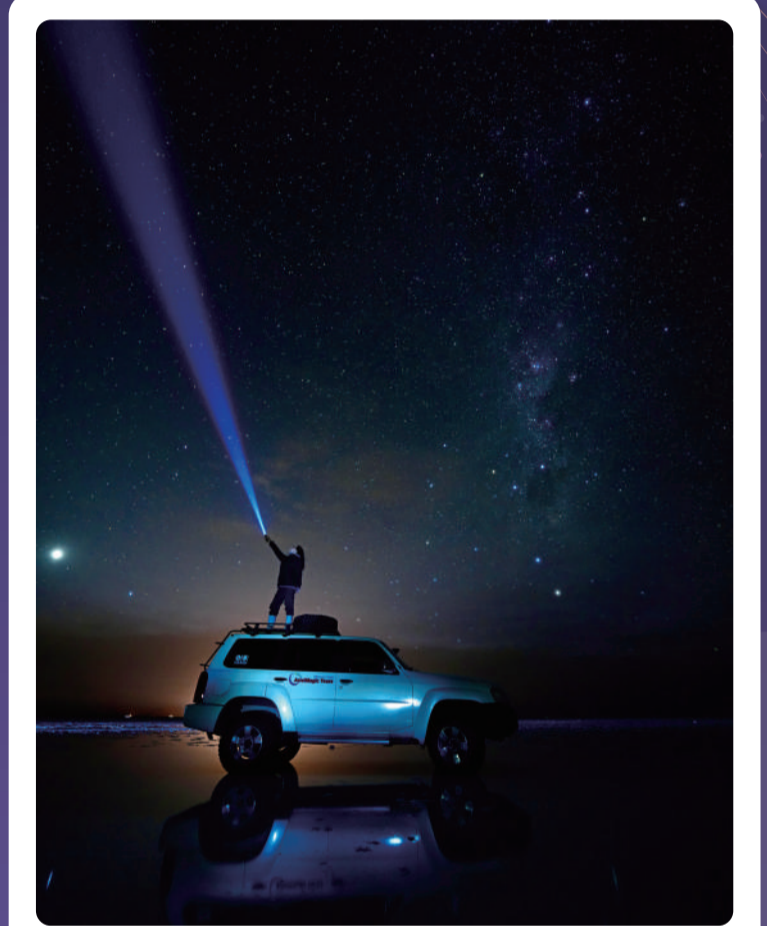
멀리서 보면 평면 가까이서 보면 입체(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자연재(컴공 2)



빛과 그림자 김상원(IT융합 4)



홀로앉기 권기범(인문 4)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 최서영(사회과학 3)

심사평



심사위원 **임태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성지부장)

약 령

- 한국예술총연합회 안성지회 부회장(전)
-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출강(전)
- 여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출강(전)
-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성지부장(현)
- 한국국립대학교 사진창작과정 출강(현)
- 명품스튜디오 대표(현)
- 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현)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 속에 담긴 찰나의 순간들은 많은 감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성대신문사 주최의 제18회 사진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주신 한성대학교 학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학생들의 소중한 작품을 심사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219점의 작품들은 이 시대의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본인만의 독특한 촬영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는 사진작품의 예술적인 가치와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작품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예술작품을 평가하고 순위를 가리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는 우수한 많은 작품 중 최고의 두 작품만을 결정해야 했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구성이 좋거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훌륭한 작품 중 기술적으로 조금은 미숙한 작품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더 좋은 사진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노수민(컴공 2)의 <시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지난해를 되돌아 보면서 더 나은 새해를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촬영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파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학생들의 소중한 작품을 심사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219점의 작품들은 이 시대의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본인만의 독특한 촬영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는 사진작품의 예술적인 가치와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작품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가작으로 선정된 박경빈(인문 3)의 <불꽃놀이>는 겨울밤 바다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행복한 모습과 추억을 담고 있는 사진으로, 여름이 끝난 겨울바다에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셔터 속도를 적절히 이용해 하이앵글로 표현했습니다. 해변에 쌓인 하얀 눈과 겨울바다의 파도는 흑과 백의 대비와 이 시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는 중간 지점에 서있는 듯한 해석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수상작에는 들지는 못했지만 나만의 손

작들이 하나씩 꼭 있으며, 어둠 속에서 그 손전등을 찾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최서영(사회과학 3)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였던 자연재(컴공 2)의 <멀리서 보면 평면 가까이서 보면 입체(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 시대 대학생들의 고민과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권기범(인문 4)의 <홀로앉기>, 수십 개의 장면이 연결돼 만들어진 도화지에 빛이 그려낸 하늘의 푸름을 표현한 김상원(IT융합 4)의 <도시의 파랑>과 빛은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만들어 보여주는 <빛과 그림자> 모두 자신의 구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심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여러분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18회 사진공모전에서 이렇게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좋은 사진작품을 위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0만세운동, 독립운동의 새 페이지

- 1919. 3. 1**
3·1운동 개시
- 1922. 2. 6**
일제, 제2차 『조선교육령』 발표
- 1926. 4. 25**
순종 승하
- 1926. 6. 5**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태극기 및 격문 배포
- 1926. 6. 10**
6·10만세운동 개시
- 1926. 6. 24**
주동 학생 11명 기소
- 1926. 11. 17**
주동 학생 11명 1심 판결
- 1927. 2. 11**
신간회 창설
- 1927. 3. 25**
주동 학생 11명 2심 판결, 실형 확정
- 1929. 11. 3**
광주학생항일운동 발발

국가에 등록된 독립운동가 수만 자그마치 1만 8천여 명에 달한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중에는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돼 널리 알려진 이들도 많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도 존재한다. 6·10만세운동과 같은 시민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학생' 독립운동가가 그러하다.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6·10만세운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을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이 6·10만세운동을 벌인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의 우리가 6·10만세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919년 3·1운동이 벌어진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통치하는 방식을 바꿔, 독립운동 세력에 분열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의 열기를 쇠퇴시켰다. 일제는 3·1운동 이전까지 헌병경찰을 동원하는 등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조선인을 강하게 억압하는 '무단 통치'를 자행했으나,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3·1운동이 벌어지자 통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에 일제는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는 제2차 『조선교육령』의 제정을 시작으로 '민족 분열 통치', 이른바 '문화 통치'로 노선을 변경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표면상 유효책으로 보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조선인을 억압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화유를 통해 독립운동 세력 안에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등의 공작도 변화된 통치 방식의 일환이었던 것이 그 일례다. 조규태(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독립의 방법을 찾던 일부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제와 타협하지는 '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독립운동 세력이 주를 이뤘던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사상이 해외로부터 유입됐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당됐고, '고려공산청년회'와 같은 청년·학생단체가 함께 활동했다. 사회주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두 독립운동 세력은 연대하기보다는 각자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윤정(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 차이가 마찰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 세력의 분파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일제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결사의 자유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학생단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 3·1운동의 선두에서 서서 만세운동을 벌인 서울 지역 고등보통학교*나 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조선학생회 ▲조선학생대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학생단체를 조직했다. 다수의 조직은 학문 연구를 표방했지만, 그중에는 식민 지배 종식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비밀리에 고민하는 학생단체도 존재했다. 강 교수



▲6·10만세운동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모여있다.

는 "몇몇 학생단체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성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서거했고, 조선공산당은 장례식 당일인 6월 10일 '제2의 3·1운동'이라 불릴만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고려공산청년회의 권오설은 조선공산당의 동의를 얻은 후, '6·10투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후 3·1운동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벌여온 천도교 등과 연대를 추진하고 격문을 인쇄·배포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독립운동 세력의 계획은 거사 직전인 6월 7일 일제에 발각됐으나, 학생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 준비를 이어 나가며 6·10만세운동은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만세운동 준비에 관여했던 기성 독립운동 세력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고 격문이 압수돼 6·10만세운동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일제의 감시를 피한 학생들이 새로 격문을 인쇄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이다. 이소철(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이사는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을 외치는 짧은 격문을 인쇄해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장례식 당일인 6월 10일, 2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위해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부터 흥릉(현 흥릉시립미술관 자리) 일대까지 늘어섰다. 순종의 상여가 종로3가를 지나던 오전 8시 30분 무렵 중앙고등보통학교(이하 중앙고보) 이선호 학생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뒤이어 중앙고보 학생 300여 명이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격문을 배포하면서 6·10만세운동은 시작됐다.

서울 전역으로 퍼진 만세운동은 지방 출신 학생들의 구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

됐다. ▲인천 ▲군산 ▲대구 등 일부 지방 도시에서도 연쇄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조 교수는 "지방 출신 학생들과 천도교, 조선공산당 등의 지방 조직을 통해 만세운동 관련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전했다.

시위가 더욱 크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일제는 7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만세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서울에서만 학생 210여 명,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학생이 검거됐다. 이들 중 106명은 취조를 받았으며, 53명이 수감됐다. 강 교수는 "일제 당국은 보병, 기병, 포병 전력을 배치해 무차별 진압에 나섰다"며 "중앙고보의 학생 중 1명은 검거 과정에서 매를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감된 53명의 학생들 중 1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학생들은 만세운동의 동기과 목적 등을 진술했다. 처음으로 만세를 부른 이선호 학생은 재판장에서 만세를 외친 이유에 대해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자유가 온다는 굳은 신념 아래 자유를 얻기 위해 만세를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상고 끝에 1927년 3월 25일, 이 학생을 포함한 10명에게 징역 1년, 준비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을 끝으로 6·10만세운동은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 있던 독립운동 세력이 6·10만세운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연대했기에, 6·10만세운동이 독립운동 세력 통합의 시작점이라고 전한다. 비록 거사 이전에 일제에 발각됐으나, 초반에 만세운동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 천도교 등 민족주의 진영과 조선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진영이 단결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국내외로 퍼진 6·10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은 독립운동 세력이 비타협적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 세력은 통합의 이념을 이어받아, 민족주의 진영 일부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해 '신간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신간회는 1927년 2월 11일 창설된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 결사 조직으로, 각종 활동을 통해 국내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강 교수는 "신간회는 독립운동 세력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결성된 조직"이라며 "여러 독립운동을 지도하며 국내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다"고 언급했다.

6·10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을 포함한 당대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학생 주도의 독립운동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6·10만세운동 이전까지의 학생단체는 서울 지역에서만 주로 나타났다. 학생운동 또한 비계획적으로 교내 문제를 다루는데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다. 6·10만세운동 이후에는 학생단체가 지방으로 확산됨에 따라, 학생운동은 또한 체계를 갖추고 거시적으로 진행되는 등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강 교수는 "3·1운동 시기 전위(前衛)적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층이 6·10만세운동에서는 독자적 주제로 성장함으로써 학생운동이 독립운동의 주류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학생단체와 학생운동의 활성화는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운동으로, 확산 과정에서 신간회가 크게 기여했다.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전국에 확산된 학생조직을 통해 학생운동이 성숙해진 것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밑바탕이 됐다. 이 이사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한 광주 지역의 학생단체인 성진회가 6·10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6년 11월 3일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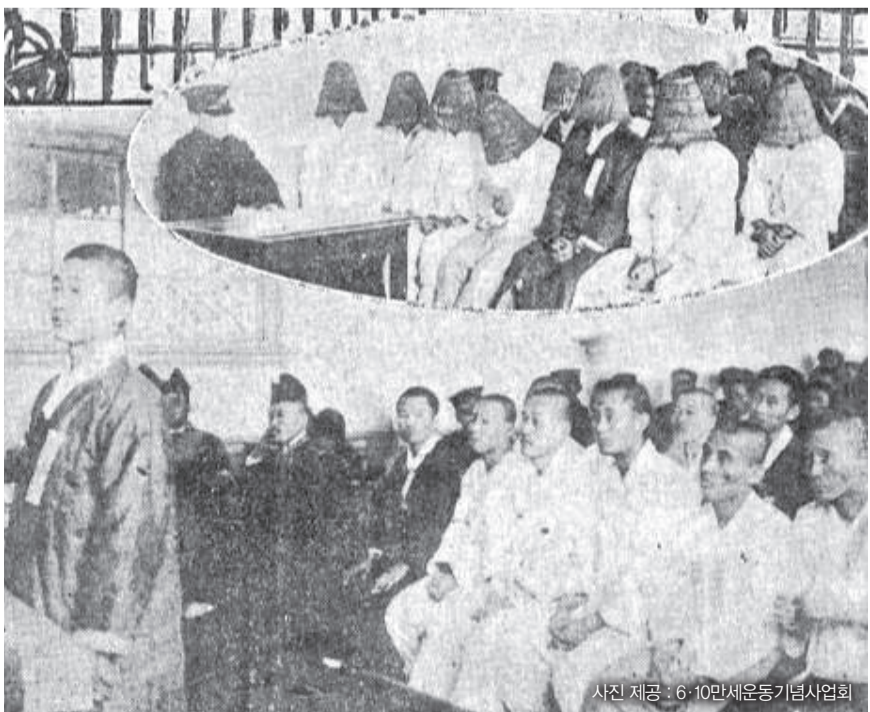
사학계에서는 6·10만세운동이 3·1운동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민족 단결과 학생운동의 발전 측면에서 의의는 크다고 강조한다. 강 교수는 "6·10만세운동은 3·1운동만큼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독립운동사에서 값진 열매를 맺었다"며 "6·10만세운동이 만든 청년·학생운동의 전통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등보통학교 : 일제가 설치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오늘날 중·고등학교에 해당

**전문학교 : 근대 이후 도입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오늘날 전문대학에 해당



▲종로3가를 지나는 순종의 상여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재판을 받는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타성을 깨며 전진하기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을 담은 학보사에서의 생활도 끝이 보인다. 학보사를 운영하는 편집국장의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은 '학보사의 위기'라는 오래된 담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학생의 무관심, 인력난, 재정적 압박 등을 운영자의 입장에서 몸소 맞닥뜨리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

다수 학보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복합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타성에 젖은 발행'이다. 학생을 포함한 독자가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 꼬집는 기사보다는 늘상 취재해오던 학내 행사에 관한 기사, 각종 홍보 기사 등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타성에 젖은 발행은 독자가 더 이상 학보를 찾지 않게 하고, 기자들은 '읽는 이 없는 신문'을 만드는 데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를 고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독자가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기자 인력도 줄어드는 것만이 '타성에 젖은 발행'이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건전한 비판을 통한 변화의 기수'라는 언론의 역할을 유기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대학언론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다. 학생이지만 기자로서, 대학언론이 언론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던 '기자정신'을 잃어버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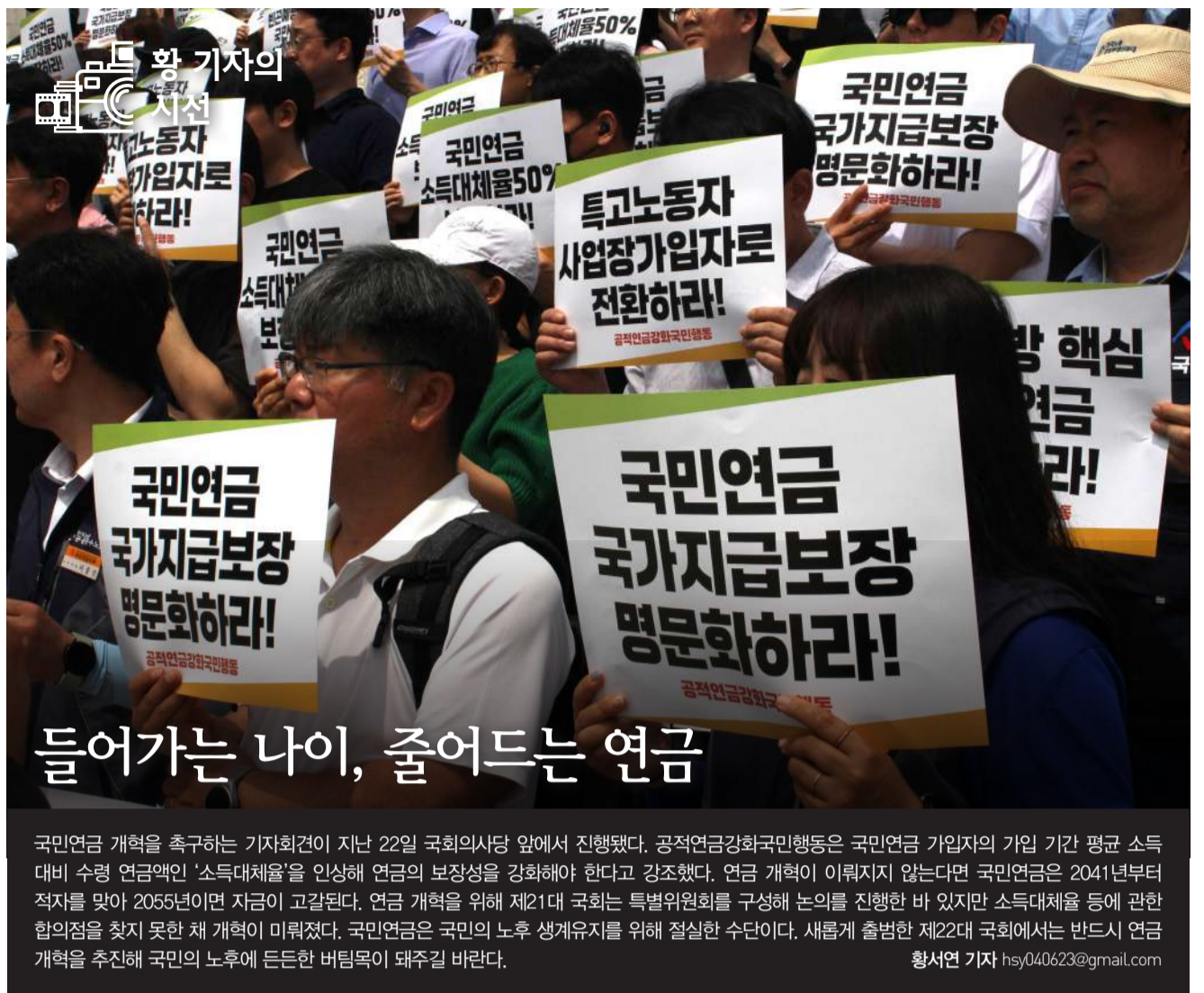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보사 내부에서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교육 등을 통해 전승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테다. 우

리 학보사가 대학언론으로서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정립하지 않은 채로 '신문의 발행'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이 유입된다고 한들, 기존 인력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신규 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니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타성에 젖어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발행이 아니라, 늘 새로운 문제를 찾아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발행이 되려면 학보사 스스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정립해야 한다. 청년·대학사회 내부의 언론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보다는 청년·대학사회의 문제에 대해 조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속 대학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대학이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팽배하는 개인주의, 종이 매체의 영향력 감소 등 학보사 외부에서도 학보사의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타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 먼저 제거한 다음에야 외부의 요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테다. 학보사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신문의 발행을 위해 갖은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독자들에게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애정 어린 도움말을 남기며 학보사 생활을 마감하고자 한다.

정성형 편집국장



들어가는 나이, 줄어드는 연금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인상에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를 맞아 2055년이면 자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을 위해 제21대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개혁이 미뤄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한 수단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복학 후 캠퍼스를 거닐던 와중 가판대에 놓여 있는 <한성대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기자'라는 업을 꿈꾸는 필자였기에 학내 곳곳에 비친 학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학보를 꼼꼼히 일독하면서 교내 청소년 등 학내에서 소외된 이들을 조명하는 기사가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기사였고, 대학본부로부터 해결책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겠노라 다짐했다.

이러한 각오로 입사한 학보사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나 기획 기사로 다뤘던 '자살유족'은 필자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자살유족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의 자살을 접한 후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다. 자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살자

작은 모퉁이의 구석까지도

를 추모하는 데에 집중하게 돼 자살유족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심이 적은 탓인지, 필자가 마주한 자살유족은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 자살유족 자조모임 대표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회적 눈초리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기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수도 있다. 취재를 거듭하며 사회적 관심이 자살유족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자살유족 문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곧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는 의미였다. 상담 등의 지원사업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했고, 이마저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여럿이었다.

자살유족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면서

남겨진 이들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져갔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필자 나름의 정책까지 고안해 보면서 기사를 발행했다. 필자가 제시한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은 낮았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독자에게 자살유족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들 대신 목소리를 냈기에 뜻깊었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는 다음 학기에도 소외된 이들이 걸어갈 길의 '가로등'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 어두운 밤 가로등 아래 밝은 불빛처럼 학교 사회 등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신문을 만들 것이다. 나아가 '학내를 비추는 언론'답게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온기를 가진 <한성대신문>이 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의화정

신인류의 탄생, 요술램프 AI

어릴 적 요술램프 지니를 보며 나도 저런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내 대신 회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줄 나만의 비서를 가지고 싶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이하 AI) 앱을 실행시키면 흡사 램프를 문질러 나타난 '지니'가 나에게 묻듯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나에게 물어온다.

얼마 전 ChatGPT-4o가 공개되고 많은 매체에서 단기간에 향상된 놀라운 기술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공개 발표에서 실시간 번역을 비롯해 이미지와 환경을 파악하고 응답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영상들은 처음 ChatGPT 버전이 공개됐을 때를 연상케 했다.

불과 몇 년 전 알고파고의 등장 또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에도 '인간보다 똑똑한가?'라는 물음을 던졌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직접 ChatGPT에게 IQ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물어봤다. "AI의 능력을 인간의 IQ 점수로 직접 변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AI는 특정 작업에 대해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인간의 종합적 지능과는 다른 것입니다."라는 웬지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몇 번의 물음 뒤에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검색 및 분석'의 능력으로 IQ 점수를 추론하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한 후 대략 130-150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간과 비교할 수 있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ChatGPT는 2022년 11월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ChatGPT-4o 버전까지 도달

하는 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속도라면 ChatGPT가 우리의 지능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순간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지능을 가진 개체를 만난 경험이 아직 없다. 하지만 AI의 등장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지도 모르겠다. 처음 전기가 발견됐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당시에도 전기를 이용해 사업을 했던 회사와 그렇지 않았던 회사의 운명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AI는 우리에게 전기처럼 다가왔다.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디까지 발전될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요술램프 지니처럼 말만 하면 뭔가를 똑딱 만들어주고 있다. 처음에는 짧은 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림도 그려주고 짧은 소설이나 시도 작성한다. AI가 그런 그림이 콜로라도 주립 박물관 미술품에서 1등을 했다는 일화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됐다. AI의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의 시대는 '지니'와 같은 AI에 어떤 소원을 빌 것인지, 다시 말해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인 기획의 시대가 오는 듯하다.

신인류와도 같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의 동반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AI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전준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낙산에 올라

당신은 당신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알고 있는가? 어느 순간 MBTI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다. 내가 "MBTI"라고만 말해도 짜증나거나, 지겹거나,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우리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 알파벳 4자리를 부여받은 일련번호처럼 줄줄이 외우고 다닐 수 있게 됐으며, 그 각각에 상응하는 의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다. 필자의 경우에는 매우 모순적이게도 4글자만 들어도 유형의 특징쯤은 떠올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인터넷의 다양한 공간에서 각 MBTI의 성향과 대략적인 성격을 첨예하게 분석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아마 필자가 이런 글을 쓴다면, 이 분야의 박사들은 이런 글을 쓰는 MBTI는 무엇이라고 나를 정의 내려줄 것이 분명하다.

■ 기자사령

임
정기자 이승희(사회과학 2)
김태형(IT 1)
심민섭(IT 1)
박석희(상상력 1)

■ MBTI는 지겨워

우리는 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피곤하다고 느끼는가. 대한민국 21세기 사회를 전문가들은 혐오, 그리고 낙인의 사회라고 부른다. 어떠한 특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다. 특정 기준은 어떤 집단에서 받아들여지기도, 배척당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자아실현 욕구는 이상하게도 점점 이뤄지기 힘든 것이 됐다. 여기서 자아실현 욕구란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심리이다. MBTI는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에서 일종의 낙인으로 가기도 매우 좋은 요소가 됐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차오른다. 우리가 각각의 일련번호 같은 MBTI를 기억하고, 재미 있어 한들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진정

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고, 어떤 유의미한 발화와 추억과 존재로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뭐라고 서로에게 그런 잣대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MBTI 말고, 학력 말고, 잘사는 수준 말고, 성별 말고, 나이 말고, 지역 말고 그냥 서로 마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단(裁斷)에서 서로를, 그리고 각자 자신을 풀어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그런다고 해도,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재단에 얽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역시 MBTI는 지겹다.

노윤지(인문 2)

■ 동정란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6월 1일부터 2년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정성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중국 이커머스, 허술한 규제 틈새로 '배송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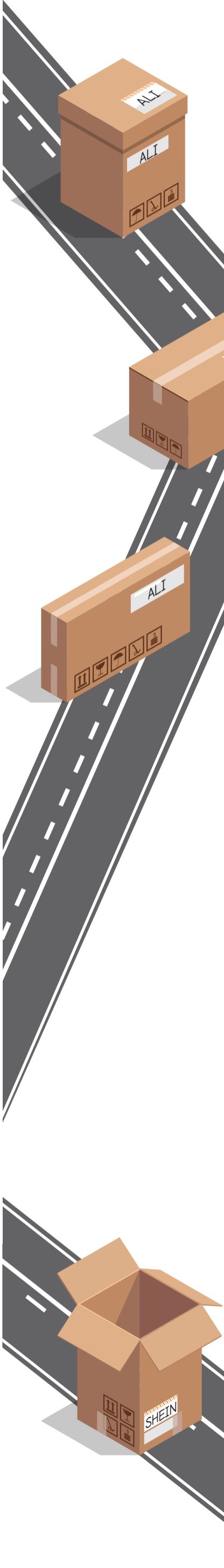
(편집자주)

'최대 99% 할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의 광고다. 해당 문구처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00원부터 시작하는 초저가 상품을 대량 판매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을 뜯어보는 '알리깡', '테무깡' 콘텐츠까지 열풍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열면 등장하는 값싼 상품들. 그러나 막상 까보니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상품은 물론이고, 광고와는 다른 상품이 와서 환불하려니 이마저도 어렵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 상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국내 시장에 뿌리 내리는 중이다. 규제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파헤쳐 봤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3조 2,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2% 증가한 수치다. 조원길(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저렴한 상품은 낮은 생산비용과 유통과정 단순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대규모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더불어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자가 직접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즉 중간 유통과정이 삭제되면서 획기적인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권세화(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품 생산 원가가 현저히 낮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93건에 그치던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1년 새 5배 급증해 2023년에는 465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돼, 2024년의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의 발암물질에 여과 없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지난 4월 발표된 관세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6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반지와 귀걸이 404점 중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의 국내 안전 기준치는 각각 0.1%, 0.06%이지만, 카드뮴 70%로 구성된 반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초저가 상품이 수입통관(通關) 과정에서 안전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예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르면, 150달러(한화 약 20만 원)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다. 즉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150달러 이하의 상품을 다수 유통하고 있기에 소비

자에게 가기 전 별다른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유광현(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대부분 인증 절차가 생략돼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리, 테무 등 일부 중국 이커머스 기업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자율협약이기에 기업들의 양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윤(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해당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기업들과 달리 알리와 테무는 '개인정보 판매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배된다. 또한 이들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중국 기업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도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조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달리, 관련 규제는 미흡해 부당광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또한 나타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모든 직구 상품에 대해 무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특별한 사유없이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술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의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환불거부 등의 불만은 143건으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의 3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요청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알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 권리 인식이 부족해 피해 신고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9.9%였으나, '국내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피해를 상담한다'는 비중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현(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갖는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중국 이커머스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중국 기업에 가해지는 제재가 미비한 데에서 비롯된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이커머스 기업도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중국에 위치한 이커머스 기업과 판매자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강력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 상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수입통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발암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검사를 의미한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 교수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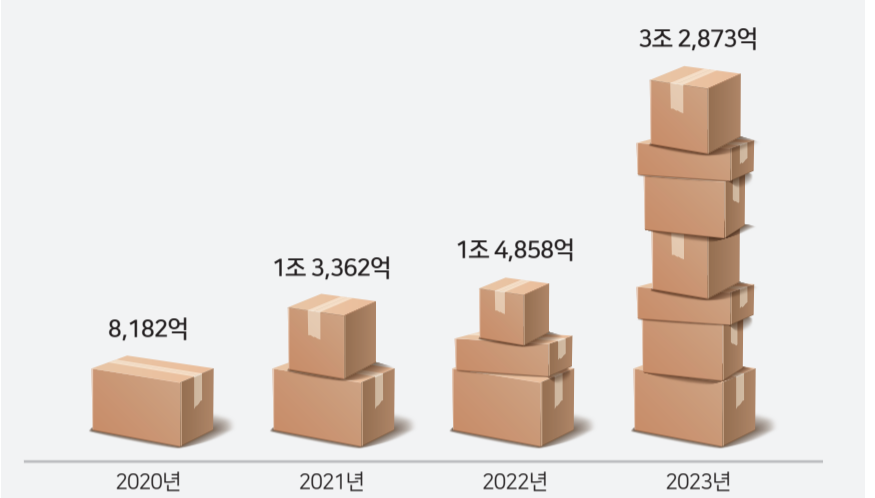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해 관련 법률을 엄격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정책실장은 "정부 차

원에서 외교 등을 통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따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방안도 존재한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대리인인 해외 기업에게 대신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한다. 박 교수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부당광고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으나,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정도가 부당광고를 통한 이익보다 약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준수 정도를 확인해 문제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9.9%였으나, '국내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피해를 상담한다'는 비중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현(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갖는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중국 이커머스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중국 기업에 가해지는 제재가 미비한 데에서 비롯된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이커머스 기업도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중국에 위치한 이커머스 기업과 판매자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강력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 상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수입통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발암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검사를 의미한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 교수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해 관련 법률을 엄격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정책실장은 "정부 차

원에서 외교 등을 통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따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방안도 존재한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대리인인 해외 기업에게 대신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한다. 박 교수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부당광고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으나,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정도가 부당광고를 통한 이익보다 약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준수 정도를 확인해 문제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불 미반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 보험 제도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법률에 별도의 조항을 뒤 손해 발생을 간단히 입증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업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해 피해 구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권리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다. 『소비자기본법』은 상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 교수는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중국 이커머스 확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커머스 :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행위